

추위 대비 맥류 안전재배 관리법은?

농진청 “물빠짐 길 정비·웃자란 맥류 밟아줘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겨울 찬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화 폭이 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밭과 보리 등 맥류가 저온·과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맥류를 재배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상재해는 저온해와 습해가 있다. 기상재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해 충분히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맥류의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웃자란 맥류 밟아주기, 물빠짐 길(배수로) 정비 등 겨울나기(월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고품질 맥류 생산에 도움이 된다.

겨울철 작물 가운데 밀과 호밀은 비교적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맥주보리, 쌀보리, 귀리 등은 추위에 약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웃자란 맥류는 12월 상·중순에 밟아주기를 하고, 얼었던 땅이 녹은 직후에 진압기로 토양을 눌러줘(진압) 봄철 서릿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저온으로 마른 잎(고엽)이 많아지거나 1월 최저기온 평균이 한계온도 밑으로 내려가면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빠짐이 나쁜 재배지에서는 수분과 다량 염분이 깊게 뻗지 못해 얼거나 산소 부족 상태가 돼 어린잎이 노랗게 변하며 말라 죽으므로 땅이 얼기 전에 고랑의 마무리 부분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빠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습해가 발생하는 재배지는 논 가장자

리에 길도랑(명거) 물빠짐 길을 만들어 준다.

습해가 발생한 재배지에는 요소 2% 액을 10아르(a)당 100리터(L)씩 2~3회 앞에 뿌린다(엽면사시).

규산질 비료(10아르당 25kg)는 뿌리의 발육을 좋게 해 습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맥류가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지역별 씨뿌림 적기 준수 등 겨울나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북 정읍에서 벼, 맥류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L모씨는 “맥류 재배지 물빠짐 관리와 진압에 신경 써야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 이후 생육도 매우 좋아진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본부 조성”

김영환 신임 한전 전북본부장 취임



19일 한전 전북본부 신임 본부장인 김영환 전 경영혁신처장 이 취임했다. 김영환 신임 본부장은 이날 이메일 취임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우리 본연의 업무인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전력산업 트렌드인 ‘탄소중립’과 ‘ESG 경영’ 등을 선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본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영환 본부장은 경남 김해가 고향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한전에 입사, 제주본부 기획관리실장 서울본부 기획관리실장, 본사 경영혁신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한전 내에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두루 갖춘 기획·인사팀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윤상 기자



18일 오전 공사사옥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임직원과 한국경영인증원이 인증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통한 새만금 개발사업 연속성 확보

새만금개발공사, 비즈니스연속경영시스템 획득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이하 공사)는 18일 오전 공사 사옥에서 비즈니스연속경영시스템(ISO22301) 획득에 따른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연속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제표준규격으로, 풍수해, 감염병, 테러 등 재해 및 위기상황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걸친 체계를 운

영·관리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이다.

공사는 설립 이후, 안전기술력을 별도 조직으로 편성, 재난 등 위기상황에도 중요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규격을 획득했다.

공사는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을 획득해 국제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는데 이어, 이번 ‘ISO22301’ 인증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선도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였다.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이상기후 현상 등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속·정확한 위기관리능력이 기업들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사 경영 전반에 걸쳐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도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더 아름다운 라이딩’

LX, 1000여명과 함께 마무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자전거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 캠페인 ‘The 타고 The 기부하는 The Beautiful Riding’을 16일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16일간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10세 이하부터 60세 이상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참가해 각자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나눔 문화 실천에 동참했다.

LX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참가자 1,000명의 참가비와 공사가 일대일로 매칭한 기부금을 포함한 총 6,000만원을 조성하여 현대캐피탈을 심리치료지원에 기부하며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증사진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오는 19일 LXTV 라이브 방송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하게 된다.

오래리 경영지원본부장은 “자전거 라이딩이라는 색다른 경험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기부문화를 자라게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ESG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전북도와 함께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이마트 140개 매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지역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 농산물, 전국 이마트에서 만나보세요

전북농협-전북도, 24일까지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함께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이마트 140개 매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지역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이마트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다. 매년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배 등 제

철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특별판매전 등의 관측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지역 우수농산물의 홍보와 판매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전북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철 맞은 신선한 농산물을 오프라인매장 외에도 전북생생장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 농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앞장

전북농협, 수출 전략품목 농가 조직화교육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출전략품목(배, 사과, 복숭아, 수박 등)에 대해 수출가 조직화교육을 18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과 수출농가와 농협 실무자에게 ‘고품질 사과 재배기술’에 대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박무용 박사가 실시했다. 한편, 코로나19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는 유튜브 채널 ‘전북농협 로컬푸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전북농협은 수출농가 조직화교육을 6월 시너머스택 핵심재배기술, 9월 토

마토 수출경쟁력 향상기술, 15일 수출배 생산 및 겨울철 과원관리기술에 대해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오는 22일 배송아 병해충관리 및 수출 확대방안, 25일 대한민국 수박명인의 수박이야기 등의 주제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의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전북도와 협력하여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며, “수출농가의 재배기술, 병해충관리 등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美 뉴욕서 ‘김치의 날’ 제정 추진 결의

aT, 뉴욕주론 김 의원 등과 선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17일(현지시간) 뉴욕주론 김 하원의원 등과 함께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론 김 의원은 김춘진 사장에게 뉴욕주 김치의 날 추진을 결의하는 선포문(Proclamation) 전달하고, 뉴욕주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Citation)을 수여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8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미국판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되며 한국이 김치 중추국임을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론 김 의원 외에도 김영환 뉴욕주 한인회 이사장겸 북미주 한식세계화연합회 회장, 문준호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회장, 김혁규 전 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7일(현지시간) 뉴욕주론 김 하원의원 등과 함께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결의했다.

남도지사, 흥대수 뉴욕한인경제연합회 회장 등 뉴욕지역 한인회 주요 인사들이 함께 뉴욕주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선언함으로써 미 서부에서 시작된 미국 주류 내 김치의 날 제정이 중동부지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한편, 2010년 270만 달러에 불과했던 데미 김치 수출은 지난해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약 9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올해는 10월 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한 2,345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이 전망된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청소년 등에

‘사랑의 PC’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8일 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에서 ‘사랑의 PC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불우층의 PC 및 전산장비를 정보 취약계층에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수거·재생 과정에서 발생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단은 ‘사랑의 PC나눔’ 사업을 통해 올해 발생한 불용 전산장비 약 70대(PC본체, 노트북)를 수거해 소프트웨어 설치 등 정비작업을 통해 170대의 PC를 재생해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재생된 PC들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정책연구원 등의 기관을 통해 전라북도 내 청소년 지원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보급되며, 코로나19로 일상화된 각종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2006년부터 ‘사랑의 PC나눔’ 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1만 3,213대의 재생 PC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왔다. /김윤상 기자

aT 김춘진 사장,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협력 요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8일(현지시간) 조현 UN주재 한국대사를 만나 먹거리 차원의 탄소 배출량 줄이기 캠페인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가 UN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서 17일에는 구독자 57만명을 보유한 북미 최고 파워 유튜버인 ‘방

치(Maangchi)’를 만나 유튜브를 활용한 김치 등 한국 대표 농수산물품의 온라인 마케팅방안을 논의하고, 먹거리 차원의 탄소 배출량 줄이기 캠페인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친환경 ESG특화상품 출시

‘내가Green초록세상에·적금’... 내달 10일까지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친환경 관련 ESG 특화상품인 ‘NH 내가Green초록세상에·적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중 월단위로 지정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적금은 초입금 5만원에 매월 1만원 이상, 매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정기예금은 300만원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정기예금 우대금리 조건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서 제출(0.1%p) ▲중이동장 미발행(0.1%p) ▲순하나로인증

서비스 등록(0.1%p) ▲NH 내가Green초록세상에·적금 상품 동시 보유(0.1%p)로 최대 0.4%p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적금 우대금리 조건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서 제출(0.1%p) ▲중이동장 미발행(0.3%p) ▲순하나로인증 서비스 등록(0.2%p) ▲채움카드(신용, 체크)로 대중교통 이용(0.2%p) ▲NH 내가Green초록세상에·적금 상품 동시보유(0.2%p)로 최대 1.0%p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상품을 출시한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월길! 내가 Green초록세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